

“방역단계 격상... 코로나19 철통방어”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사회에 계속되자 전남도가 방역단계를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우리 도는 6일부터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수도권, 충청권,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 지역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사찰과 교회, 병원, 요양시설, 방문 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역감염이 계속되어, 더 이상 ‘생활 속 거리두기’

만으로는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방역 조치로는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카페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도의 무화했다.

도내 전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식품접객업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다.

노인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외부인 면회도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이달 3일부터 면회 금지와 입소자·종사자 출입을 제한하는 준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유치원·초·중고 학생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이며 무더운 날씨로 힘들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며 “지역감염 차단에 성패를 가르는 중대 시점인 만큼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의 광주시 지역사회 내 급격한 확산 속에 인근 전남지역에

도 감염전파가 계속되면서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전남 26번 확진자의 경우, 동선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고 불특정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데다, 증상 발현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출근하고 선별진료소를 다녀온 이후에도 직장에 들르는 등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목포시에서 3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4일 오후와 이날 새벽 연이어 전남 26번 27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26번, 27번 확진자는 광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감염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50대 여성인 26번 확진자의 경우 직장은 함평군에, 거주지는 나주시에 있고 동선이 직장 and 집은 물론 광주·화순까지 퍼져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동네방네



나주경찰서는 코로나19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나주경찰서-나주시 코로나19 사각지대 방역

나주경찰서는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집중 점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주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무리를 이루어 집단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의심에도 강제출국 위험성이 있어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단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거주형태 및 생활환경 특성상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나주경찰서와 나주시가 합동으로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집중점검 및 방역활동을 실시하게 됐다.

방역활동은 외국인 밀집지역 원룸촌 중심으로 전개되며 손소독제·소독약·마스크 등 방역물품 공급과 함께 외국인 주민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여 외국인 맞춤형 방역활동을 수행한다. /전남=나주=강성대 기자 ksd1008@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등 세계기록유산 목판 공개

한국국학진흥원, 전시체험관 개관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개관.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이 세계기록유산 목판을 처음으로 일반인에 공개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5일 세계기록유산을 일반인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을 오는 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은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세계기록유산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관람객에게 쾌적한 전시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문화재청과 경북도, 안동시 지원으로 2017년 11월 착공,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전시체험관은 지하 1층에 현판 전문 수장고, 지상 1층에 유교책판을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가 있다.

지상 2층에는 현판을 관람하는 개방형 수장고 및 한국국학진흥원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하지만 이들 시설물은 안전한 보관을 위해 비공개 수장시설로 운영돼 지

금까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었다.

한편 한국국학진흥원은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2016년에는 ‘한국의 편액’을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각각 등재시켰다.

2017년에는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2018년에는 ‘만인의 청원, 만인소’를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에 연달아 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구축되면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광주시, 어린이집 1073곳 전면 휴원

코로나19 감염 최소화 일환 실시

광주광역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1073곳을 전면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5일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접촉자가 급증하자,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을 통한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은 6월 1일 휴원이 해제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재휴원에 돌입하게 됐다.

단, 광주시는 휴원기간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사는 정상근무하는

등 긴급보육 실시로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간제보육제공기관(29곳)은 정상운영한다.

또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일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 및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담양군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 긴급 행정명령 발동

곡성군, 오늘 소상공인 지원센터 개소

곡성군은 오는 6일 곡성읍 중앙로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센터는 상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 시가지에 마련됐다. 아울러 곡성군은 지난 4월부터 직원을 채용해 도시경계과에서 근무하면서 상담요령과 행정업무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앞으로 센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 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로서 기능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곡성군을 식업지부 사무실에서 진행하던 (재)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장상담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재개할 계획이다.

/전남=곡성=김태수 기자

담양군, 모임금지 등 코로나19 차단 총력

대책회의 열고 행정명령 발동

담양군이 인근 광주광역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담양군은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3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사회단체의 집회와 행사 금지, 방역수칙 준수와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명령에 따라 지난 4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은 모든 집합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실외 스포츠시설과 담빛수영장, 문화회관, 체육관 등 실내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한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을 임시 폐쇄하고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등 군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남=담양=김태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화순군, 유입차단 총력전

화순군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화순군은 지난 2일 김중갑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지역 감염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긴급 대책회의는 화순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된 10개 협업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참석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전남=화순=강성대 기자

안동시, 저소득층 연탄지원 31일까지 대상자 신청접수

안동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해당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및 무연탄 수입안정을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매년 관내 1,000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북=안동=문봉현 기자 newsmun@